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정국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만해빌 PSPD, 나우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담당: 김정희 : 723-5303)  
제 목 전두환 노태우 부정재산 완전몰수를 위한 집회  
날 짜 1998. 1. 9. (총 1 쪽)

## 보 도 자 료

### 참여연대, "전·노 부정재산 완전몰수와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집회 -전두환씨 집앞서 개최

일시 및 장소: 1998년 1월 9일 낮 12시 전두환씨 자택부근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金昌國: 참여연대 공동대표, 변호사)에서는 1월 9일(금) 낮 12시 전두환씨 자택부근(서대문구 연희2동 어린이 놀이터앞)에서 전두환, 노태우씨의 부정축재재산 완전 몰수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조치와는 별도로 추징금에 대한 추징절차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전·노씨의 검은돈을 끝까지 추징하기 위한 검찰의 엄중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는 현 국가경제의 위기가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기인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부패척결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3. 특히 노태우씨의 경우 숨겨둔 돈의 명세가 대부분 파악된 것과는 달리, 전두환씨의 재산은 재임기간동안 조성한 2,205억원의 비자금 가운데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한 금액이 1,400억 원에 이르며 이중 880억원 가량을 무기명산업금융채권으로 숨겨 놓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4. 아울러 참여연대는 부패의 사회적비용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